

지역 소식

제20대 반종선 강원도 향교재단 이사장 당선

유림에 몸담은 30년 노하우,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무 최선



◇홍천향교 전경



◇반종선 이사장

청소년 예절교육 활성화 도모 구 보건소 자리에 충효관 건립

강원도 향교재단 20대 이사장으로 홍천군의 반종선씨가 당선되었다. 거제 반씨 28대손으로 1948년 6월 18일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유학 가정의 둘째로 출생하였다. 출생지인 구만리는 홍천군과 춘성군(현 춘천시)의 끝자락이 맞닿는 마을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반종선 이사장은 광관초등학교 졸업 후 춘천시 소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며, 춘천 농업대학교(현 강원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 후 15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였다. 이후 홍천축협에서 군

무하다가 사료회사 동방유랑(주)을 거쳐 홍천군에서 배합사료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반종선 이사장은 1990년 홍천향교 청년유도회 창립회원으로 향교에 입문하여 청년회 회장을 거쳐 2001년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중앙위원 성균관 전학을 역임하고, 2003년 전국 234개 향교 중 5개 향교에 선정되어 당시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 청소년 생활 예절 책을 제작하였으며,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예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예절교육의 뜨거운 호응에 홍천군에서도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예절교육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향교, 서원의 활성화에 힘입어 여성유도회원들이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서 시행하는 생활 예절 전도사 자격증을 10여 명이 취득하였다. 2010년에는 홍천향교 전교 일을 보면서 당시 국회의원과의 협력하여 2014년 국비를 확보하여 구 보건소 자리에 충효관을 건립하는 데 일조하였다.

강원도 향교재단 제20대 이사장으로 당선된 반종선 이사장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됨은 홍천군과 춘천시 향교 유림의 성원이라고 생각한다. 성원에 보답하고자 70대 중반의 노익장이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유림에 몸담은 노하우를 통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CONTENTS



02 - 홍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

03 - 홍천군농업기술센터 - ③ 귀농귀촌지원센터

04 - 문화행사 - 찾아가는 문화활동

05 - 홍천강, 길따라 맛따라

06 - 기자칼럼

06 - 인생칼럼

07 - 국민연금 Q&A

07 - 건강정보

08 - 광고



홍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 : 홍천의 도심을 디자인하다

홍천 원도심 회복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재자 역할 기대



◇도시재생 캠페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

도시는 비대해지고 농촌은 쪼그라들다 못해 소멸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요즘의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 작은 지방 도심을 살리려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것이다. 지방의 작은 소도읍인 홍천도 활발하게 도심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해서 ‘홍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를 찾아가 보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왜 필요한가

홍천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관련법을 근거로 군의 도시교통과 소속의 ‘홍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를 조직하였다. 2019년 10월에 출범한 센터는 지난해 서울에서 관련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최소영 센터장이 책임을 맡으면서 사업의 활기를 띠게 되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하여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코디네이터 2명으로 구성된 팀원은 사업의 활동 영역 범위를 고려할 때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지만 팀원들의 열정으로 소화해내고 있다. 홍천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업체 수 감소, 노후 건물로 인한 생활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했다. 홍천의 원도심 회복은 주민들이 항상 바라던 바였지만 이를 추동해줄 주체가 없었다. 또한 도시재생의 완결판인 뉴딜사업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이다. 본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해 군과 주민들을 연결해줄 중재자로서 ‘홍천군도시재생센터’가 자리매김하였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현재 도시재생 사업의 해당 지역은 세 곳이다. 신장대리(新場垓里) 일원, 희망리(希望里) 일원, 진리(津里) 일원이 그곳이다. 세 곳 사업에는 10여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홍천의 제일 변화한 도심은 신장대리 일원이다. 이곳 주민들의 구성원 대부분은 상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이다. 서로 지근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소통창구가 미흡하여 서로 간에 오해들이 많다. 상인들의 자발적

인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장의 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최 센터장은 말한다.

신장대리 일원에서의 상권회복 및 도심 회복은 상인들의 소통이 먼저임을 인식하여 평소 서먹서 먹했던 이웃에 간단한 편지와 메모를 써서 도시락을 전달하는 ‘도시락 릴레이’ 사업은 초창기 반신반의하며 동참했던 이웃 주민들과 상인들을 묶어 주었고 그 결과 <힘내Go! 도시락 릴레이>라는 책자를 내게 되었다. 또한 이웃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신장대리 100인의 마주침>이라는 책자를 내고 출판기념회를 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고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시켜주었다. 희망리 일원은 홍천의 관문 ‘홍천터미널’이 있다. 홍천은 예로부터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다. 이는 관광 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중요한 관광 산업의 통로였지만 주변 시설의 노후화 및 홍천의 관광 자원 개발의 미흡으로 날로 쇠퇴해가고 있었으나 앞으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희망리 일원은 홍천 관광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지금 사업 중인 ‘공유부엌’은 날로 성장하는 공유 경제와도 맞아떨어져 여행자들의 여행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게 최 센터장의 견해다.

진리(津里) 일원은 원래 나루터가 있는 홍천의 최대 상권이었다. 또한 홍천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홍천의 근현대사와 관계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발굴하여 마을의 관광 스토리로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센터는 이에 주목하여 이야기와 서사가 있는 진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주민들의 소통창구이자 역량 강화 교육 장소인 ‘진리탐구 마을연구소’를 세우기도 하였다.

향후 하게 될 비전 사업은 무엇인가

현재 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앞으로 도시재생 뉴

딜사업을 하려는 마중물 사업이다. 이미 신장대리 사업은 성공적으로 끝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한 상태다. 올 9월에 최종 발표를 앞둔 본 사업은 최 센터장에 의하면 채택이 아주 긍정적이라 한다.

사업 금액도 무려 177억이며 기간도 4년이다. 본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거복지 및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키게 된다. 도심 공간이 혁신됨으로써 이는 도시재생 및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지고 단순한 지방이 아닌 특색 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며 더는 서울의 변방이 아닌 홍천 지역이 되는 것이다. 아직은 뉴딜사업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희망리 일원, 진리 일원의 도시재생 사업도 그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으며, 지역의 범위를 넓혀 도심과 농촌이 상존하는 갈마곡리 일원도 도시재생 관심 지역이다. 남면의 양덕원리, 서석면의 풍암리도 조만간 사업의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언은

이 사업의 가장 큰 자원은 사람 즉, 지역 주민이다. 큰 틀에서는 군의 행정 지원을 받고 센터는 군과 주민들을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없다면 센터의 역할은 무의미하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높여주는 소통창구와 주민협의체 활성이 우선시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뒤따라야한다고 최 센터장은 말한다.

또한 이 사업이 홍천 지역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않았으며, 사업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차있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뉴딜사업에 대한 의욕이 넘쳐 보였다.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앞서가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 ③ 귀농귀촌지원센터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홍천군귀농귀촌지원센터 직원들(왼쪽 홍기식 담당)



◇홍기식 담당

이번호에서는 홍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영) 내 홍천군귀농귀촌지원센터의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 센터의 운영

홍천군의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는 예비 귀농인(도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의 이해와 적응, 농산업 창업 과정 실습 및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홍천군은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전국 최고의 농업창업 교육기관을 목표로 농산업 창업 교육, 체험 등 One-Stop 서비스로 성공적인 농촌 정착 지원을 전개하여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통한 홍천군의 농업,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다.

올해(2021년)는 약 25억 원을 투입 예비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체류시설에 입소시켜 농업창업 과정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한다. 홍천군의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는 서석면 구룡령로 2733번지에 주거공간 28세대(원룸형 16세대, 투룸형 12세대), 세대별 텃밭, 공동실습장, 시설하우스, 체육 및 휴게시설, 농자재 보관창고, 교육시설, 쉼터 등을 갖추고 있다.

귀농귀촌 학교 운영=올해는 8회에 걸쳐 200명을 선발 농업 농촌의 의미, 지역공동체 이해 및 갈등관리, 농장 현장 탐방 등의 단기 교육(2박 3일 숙박교육)을 진행한다.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올해는 10명을 선발 1년 차에는 매월 80만 원, 2년 차에는 월 50만 원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홍천군에 이주한 신규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4명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올해는 신규농업인 교육훈련비로 매월 8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급하며, 선도 농가에 교수 수장지원으로 연수생 1인 매월 4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급한다.

귀농 창업 지원=올해는 1개소에 1천만 원의 예산을 기초 영농기술, 현장실습교육과 연계한 설계지원 창업·심화·코칭, 창업심화코칭과 연계한 창업·모델발굴 창업모델발굴, 소자본 창업지원으로 귀농인의 사업과 역량 강화 및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한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 젊은 귀농인 창업 지원=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과 연계하여 정착 기반을 지원한다. 올해는 2개소에 1억 원(군비 8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으로 관정·개발관정개발, 비닐하우스 설치, 농기계구입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지역민과 융화 및 지역사회 기여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3~4개소에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 융화 우수사례, 갈등관리 방안, 역할극, 선진지 현장 방문교육 등 주민참여형, 체험형 교육을 하며, 강사료, 다과비, 기념품비,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강원도 한 달 살기 지원=귀농·귀촌 희망지역에 대한 사전 농업 농촌 문화 및 생활 등 체류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5명을 선발하며, 참가자는 강원도에 이주를 고려중인 자로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이면 가능 하다.

귀농인의 집 조성=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개소에 개소당 4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빈집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구입비용 등을 지원한다. 입주대상자는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홍천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1년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이용자가 없

면 3개월 이내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사후관리 기간(지원 년도 다음 해부터 7년간) 동안 반드시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월 임대료는 15만 원 이내로 결정된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을 유도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최장 6개월간 주거 공간 및 연수프로그램을 제공, 일자리 연계,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운영자는 마을 위치, 숙박 현황, 프로그램 운영계획, 교육시설, 부대시설 등 관련 정보를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페이지에 등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참가자를 모집 참가자를 선정하고, 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 처리 된다.

농촌 빈집 수리비 지원=농촌 빈집 수리비 지원을 통한 귀농인 유입 촉진으로 홍천의 농촌 활력을 도모하며,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을 촉진하고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3개소에 6천만 원(군비 3천, 자부담 3천)의 사업비로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타 산업 분야에서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 최근 10년 이내 홍천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며, 사업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건축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신축 후 10년이 넘은 주택이 해당한다.

도시민 유치홍보 및 상담=예비 귀농·귀촌인 및 초기 귀농·귀촌인에게 지원정책 및 멘토와의 상담 실시를 통한 귀농·귀촌 유치 활동 전개와 지속인 홍보 및 정보제공으로 도시민들이 홍천에 정착할 의향을 증대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올해의 사업량은 10회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5회) 지역축제 참가 및 귀농·귀촌 상담 홍보 부스 운영(5회)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위와 같이 홍천에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거나, 홍천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담하는 홍천군 귀농귀촌 센터의 홍기식 담당은 홍천군 북방면 출신으로 강원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제군에서 근무하였으나 이왕이면 본인의 고향 홍천에서 근무하며, 고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홍천군에서 봉직하고 있다. 공무원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로 업무에 임하여 그동안 농림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은바 있다. 홍기식 담당은 직원들과 함께 “홍천의 귀농·귀촌을 책임진다”는 자긍심을 갖고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소열 기자 (silverhong21@naver.com)

관중들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어울림의 한마당



◇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하는 모습

고정된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작은 규모지만 관객에게 다가가는 실속있는 작은 공연

수타사 테마공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국악협회 주최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은 그런대로 성공적이었다. 코로나19의 시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관중들과의 교감이 이루어진 어울림의 한마당이였다. 실내 무대보다 잘 꾸며진 테마공원 내의 야외무대에서 6월 26일 오후 2시부터 본 공연의 막이 올랐다. 오전부터 비가 내렸지만, 간헐적으로 내린 비는 공연 시작 전에 소강상태를 보이더니 그쳤다. 첫 무대는 북 병창 단원들의 사철가를 시작으로 관중들의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사철가는 판소리 단가로서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목청을 가다듬기 위하여 부르는 짧은 노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풍경을 묘사하면서 세월의 덧없음과 인생의 무상을 노래한다. 비교적 최근인 20세기 전반에 김연수가 작사 작곡했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고 한다. 다음은 사철가 가사의 일부분이다.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진정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마는 세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은 반겨 헌들 쓸 데 있나.
봄아 왔다가 갈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초 승화시라!
예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삭풍 요란해도 제 절개를 지키지 않는 황극단풍도 어떠한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목한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은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지백하니 모두가 백발의 벗이로구나.

—종락—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는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계수나무 끝끝 터어리에다 대량양

매달아 놓고 국곡투식 허는 놈과 부모 불효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세상으로 먼저 보내 버리고, 나머지 벗님네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령 거리고 놀아보세.

사철가는 가사 대부분이 삶의 덧없음과 인생의 무상을 노래하고 있다. 북장단과 어우러져 임명선 외 7명의 열창으로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경기 민요는 윤동일 외 5명이 합창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고 구성지계 민요의 맛깔스러운 맛을 자아냈다. 심청가 중에서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의 열연은 판소리의 백미였다. 고수 박양순과 명창 김옥순 그리고 문선희의 판소리 양상블 또한 관중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국 무용도 젊은 무용수들의 발랄한 춤사위로 관중을 매료시켰다. 디스코 민요 메들리 강원도 아리랑. 차차차. 신고산 타령 등 남도 민요를 출연진이 모두 무대에 올라 다 함께 부르는 것으로 공연의 마무리를 장식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의 공연을 관람하면서 고정된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작은 규모지만 실속있게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품바의 각설이 타령에는 관객이 무대 앞에 나와 함께 춤을 추며 어울리는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이 이어지기도 했다.

각설이에 대해 알아본다. 각설이를 한자로 쓰면 覺說理가 된다. 각설이의 각(覺)은 깨달을 각자이고 설은 말씀 설(設)자이며 이는 이치리(理)이다. 이를 풀이하면 “깨달음을 전하는 말로써 이치를 알려 준다.”라는 뜻이 된다. 한마디로 깨치지 못한 민중들에게 세상의 이치를 알려 준다는 뜻이 담긴 말이다. 언제나 들어도 흥겨운 각설이패의 놀이는 신나기만 하다.

찾아가는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접근하기 좋은 곳에서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공연 예술로서 관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관객과 같이 즐기고 호흡할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전개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품어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쉽게 예술을 접하고 향유하며 보다 많은 사람의 행복 지수를 높여 줄 수 있리라 믿는다.

김정현 기자(kjh8639@hanmail.net)



홍천강, 길따라 맛따라

홍천군 서면 팔봉강변길

팔봉산 강변을 따라 마주한 카페 “쿠실” KUSIL



◇카페 쿠실 전경

프랑스 시골 가정집을 모티브로 한 예쁜 카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조용하고 감성적인 장소

팔봉산 관광지를 돌아 홍천강 건너 팔봉강변길을 따라가다 보면 녹색의 커다란 대문과 “CAFE 쿠실”의 입간판이 무심한 듯 세워져 있다. 대문 안쪽으로 잘 가꾸진 정원수 길을 따라가면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아담한 건물이 보인다. 갖가지 여름꽃들과 초록의 나무들이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어우러져 동화 속의 한 장면이 연상된다.

‘쿠실’은 프랑스 시골의 작은 가정집을 모티브로 한 예쁜 카페이다. 실외에 놓여있는 빈티지한 핑크빛 장식장과 파스텔 톤의 작은 가구들, 그리고 피크닉 바구니가 놓여있는 그늘막 아래 야외테이블이 눈길을

끈다. 파란색 창틀의 통유리에 비치는 연인들의 모습이 엽서의 한 장면처럼 평화로워 보인다. 설레는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테이블마다 제각기 개성적인 인테리어로 시선을 한곳에 둘 수가 없었다. 메인 홀 옆에 작은 홀이 창을 통해 보였다. 그곳으로 들어가니 뒤쪽 정원이 또 다른 모습으로 창밖에 펼쳐져 있었다. 카페라테 두 잔과 디저트로 크레프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기 전 뒤쪽 구경을 하려고 밖으로 나왔다. 하얀 철제문 너머에 꽃수레와 예쁜 그네 그리고 아기자기한 테이블이 앞 정원과는 다른 느낌으로 마음을 사로잡는다.

주 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강변길 117

영업시간 평 일 10:30-19:00
토요일 10:30-20:00 / 수요일 휴무

전화번호 0507-1486-0149

생화와 허브로 장식된 프랑스식 크레프와 크루아상, 단호박 요리 등은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디저트 메뉴이다. 아침마다 주인장이 신선한 빵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므로 오후쯤 되면 종류별로 품절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손님이 조금 빠져나갈 무렵에 메인홀의 감성적인 인테리어를 사진에 담으면서, 잠시 짬이 생긴 주인장에게 단체석 예약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초록 대문으로 들어올 때 보이는 유럽풍 건물의 2층이 바로 단체석으로 예약하는 손님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개성 있게 꾸며진 각 룸은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 만남에 적합한 공간으로 추천할 만한 곳이다. 반려견을 동반할 경우에는 목줄(리드 줄)을 지참하여 실외 테라스석 이용이 가능하다.

부모님과 젊은 따님이 함께 경영하는 카페 “쿠실”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가족이 함께 살던 체험을 바탕으로 5년 전에 귀국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처럼 해외여행이 힘든 시기에 유럽 어느 시골 마을에 와있는 감성적인 분위기에서 쉬었다 갈 수 있다면 지친 마음에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관광지와는 비교적 거리가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 조용한 곳을 찾으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카페이다.

조하경 기자(jok9621@daum.net)



◇크레프와 카페라테



기자칼럼



이 광 명

홍천실버신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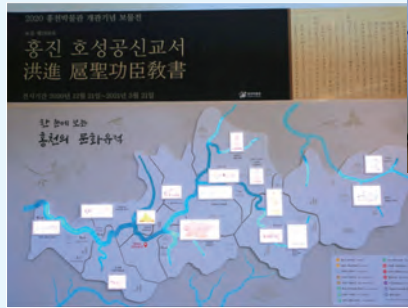
홍천박물관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무궁화공원 내(홍천읍 장전평로 18)에 소재해 있다.

홍천의 주요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홍천 전역에 위치한 문화재 및 유적을 소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록 전시실에는 홍천의 중요한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를 다루어 관람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다.

홍천박물관 2층에는 교육실과 휴게실이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실은 세미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



◇홍천박물관 전경



◇홍천박물관 내부



홍천박물관

하기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휴게실에서는 관람 중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역사유적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는데 그중에 영귀미면 수타사의 역사 유적 중 홍천 수타사 소조 사천왕상이 인상 깊었다.

사천왕은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고 불교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신으로 숙종 2년(1676)에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인석보 권 17-18은 세조 때 처음 간행된 초간본이고, 월인석보는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 만든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합쳐 강행한 책으로 석가의 일대기와 그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훈민정음 창제 후 제일 먼저 나온 불경언해서(佛經諺解書)이며, 당시의 글자나 말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매우 귀중한 문헌이다. 또한, 우리나라 서사 문학에 광대한 설화들을 제공하였다. 사천왕상을 수리하기 위해 해체하였을 때 발견하였다.

홍천박물관은 문화박물관으로 무궁화의 고장 무궁화 중심 도시라고 한다. 그 후 홍천에는 무궁화 공원, 무궁화 테마파크, 무궁화 수목원이 조성되어 무궁화꽃이 홍천에 많이 심겨 나라꽃이 되었다.

인생칼럼



석 도 익

소설가

세상 문명은 돌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주변에 돌을 이용해서 칼을 만들어 자르고, 도끼를 만들어 부수고 받는데 쓰인 것이 돌이다. 또한 돌을 사용하다가 돌에 함양된 철을 이용하는 철기시대를 열면서 인류 문명의 발전은 가속화되었다.

지표면 위로 드러나 있는 암반인 바위가 긴 세월이 흐르면서 조각으로 떨어져 나온 것을 돌이라 하고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돌멩이 조약돌 자갈 모래 그리고 흙이 된다고 하는데, 석기시대 우리 조상들은 돌을 이용하여 제일 먼저 디딤돌을 놓았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디딤돌은 당장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

라 약자나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하여 옮겨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디딤돌은 냇물을 건너기 위해서 놓는 돌다리라든가 계단의 바닥 돌이나, 마루 아래의 섬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한 것으로는 말을 탈 때 딛고 서서 올라타기 편하게 한 노뚫돌도 이에 속한다.

마루에 올라서기 편하게 한 디딤돌은 보통 보석(步石) 또는 섬돌이라 부르는데, 적당한 자연석을 약

람의 일상에 쓰임새로 보아도 인류 역사의 시작이며, 머릿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배려였다.

바위가 부서져 돌, 자갈, 모래나 더 가는 가루가 모여 흙이 되는 경우에 흙이 되는 최초의 바위를 가리켜 어머니가 되는 바위라는 뜻으로 모암(母岩)이라 하며, 또한 흙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진 것을 모재(母材)라고 하고, 이 모재가 여러 작용에 의하여 흙의

기에 이 걸림돌을 빼버리자 했으나 바위 같은 큰 것이라 어찌지 못한다면 걸림 부분을 흙으로 덮어준다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걸림돌을 탓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이를 잘 덮어준다면 우리 사회는 모난 돌이 없이 둥글둥글하게 때론 디딤돌이 되어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모진 풍파에 굴리고 깎이어 둥글둥글한 굴러온 돌과 한곳에 깊숙이 박히어 세상 물정 모르고 있던 박힌 돌과 만나 부딪쳐 둥글어지는 세월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서 사신 선조들이 놓은 디딤돌은 역사일 것이고 이 역사를 디딤돌로 디디고 앞으로 나가며 후세들이 안전하게 딛고 따라 올 수 있게 디딤돌을 손보고 다시 놓아 주고 스스로도 후세에 디딤돌이 되어 디디고 건너뛰어 갈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은 배려이고 사명일 것이다.

또한 가장 든든하고, 있을 때 있어야 하는 디딤돌은 국민을 위해 놓아야 하는 국가의 일이며 정책이어야 한다.

디딤돌과 걸림돌

간만 다듬어서 쓰기도 하지만 대개는 화강석을 잘 다듬어서 장대석으로 만들어 썼다. 마루가 아니더라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문지방의 안팎으로 디딤돌을 놓았다.

이와 같은 것이 계단의 원초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계단의 바닥 돌은 그대로 디딤돌이라 하며, 높이에 따라 여러 개의 디딤돌을 중첩하여 놓은 것이다.

디딤돌이란 그 자체가 이같이 사

층위가 나누어져 비로소 흙이라고 한다. 아마도 역겹의 세월이 쌓인 것이 흙이라고 할 수 있다.

집을 짓는 주춧돌로 생활에 디딤돌로 이제는 모래와 자갈에 석회석으로 만든 시멘트를 섞어서 다시 돌을 만들기도 하고 건축 전반에 쓰이니 돌의 문화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하게 쓰이는 돌도 잘못 놓이면 걸림돌이 되고 돌부리가 되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돌이 땅 위로 뽕족하게 불거져 있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의 경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기록했다고 알고 계신 2018년의 경우 미·중 무역 분쟁, 선진국 통화긴축, 부실 신흥국 신용위험 부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금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기간을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는 채권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자산군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주식 투자로 104.7조원의 누적 수익금을 거두었고, 6.34%의 누적 수익률(국내 4.69%, 해외 5.26%)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고려하였을 때, 특정 자산군 위주의 투자만으로는 적정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는 투자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운용지침, 중기자산배분계획 및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투자 수익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채권보다 장기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공단은 감내할 수 있는 위험한도 내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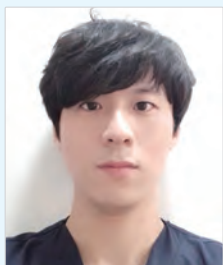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fund.nps.or.kr>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 033-439-5430

건강정보

여름철 무더위 대표 질환 일사병과 열사병



김 홍 일

삼성미취통증의학과의원 과장

역대로 3번째로 짧은 장마가 지나가 버리고 습시기조차 힘들어지는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뜨거운 기온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체온이 오르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신체 끝까지 보내지는 혈액량을 늘려 열기를 발산하고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수분과 염분을 잃게 되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심각한 갈증과 무기력,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온열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온열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입니다. 두 질환 모두 더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지만, 일사병이 열사병에 비하여 가벼운 경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사병은 휴식을 취하면 비교적 쉽게 회복되는 반면, 열사병은 제때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사병 단계에서 대처하지 못하였을 경우 열사병으로 발전합니다.

또한 노인, 호흡기,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거나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 더욱 쉽게 열사병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사병과 일사병의 예방 및 대처방법

일사병은 체온이 급격히 상승한 뒤 어지러움과 정신 혼란이 생기지만 의식은 뚜렷한 상태로 직사광선에 의한 자외선과 열에 의해 발생합니다. 보통 얼굴이 붉어지고 숨결이 거칠고 열이 나는 상태로 동시에 두통 및 메스꺼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사병을 피하기 위해선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시고, 혹시 무더운 야외에서 일을 할 경우 모자를 착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으로 목을 감싸주시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보충하는 게 좋으며 스포츠음료는 염분과 미네랄 성분을 보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열사병은 일사병을 넘어선 상태로 몸의 체온이 40도를 넘겨 중추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정신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호흡이상, 발작, 경련, 의식불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신부전과 심인성 쇼크, 간기능 부전을 야기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열사병이 의심된다면

- ①신속하게 119에 신고한다.
- ②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 ③옷을 느슨하게 하고 의식저하 시 의복을 최대한 벗긴다.
- ④119도착 전까지 얼음이나 젖은 수건 등으로 체온을 낮춘다.
- ⑤의식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약 포함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다.

건강한 / 활기찬 / 일하는 / 행복한
노후를 위한

홍천군 노인복지관

어르신의 아름다운 노년과 늘 함께 합니다.

[“아들과 함께 살고싶어요...”]

[“살 집이 없어요...”]

곽순자(가명) 어르신은 정부에서 지원 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금자리 주택 퇴거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군청으로부터 퇴거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들과 따로 살면 해결될 일이지만, 어르신의 아들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가스 불을 켜두고 잠에 드는 아들을 보며 혼자 둘 수 없다고 판단한 어르신은 자신의 작은 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보금자리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어르신은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갑니다.]

아픈 아들과의 삶을 위해 매일 일하러 나갑니다. 아침마다 쓰레기를 줍고, 그렇지 않은 날엔 폐지를 주우러 나갑니다. “이 땡벌에서 쓰레기를 줍고, 폐지를 주우러 나가면 덥고 온 몸이 쑤셔...” 이 돈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의 보증금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보증금 300만원이 필요하지만, 다리가 아픈 아들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제외하면 어르신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버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밤중에도 어르신은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밤마다 밖을 배회하며 길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를 아들을 찾아다니느라 불면증이 생긴 지 오래입니다.

힘들어도 아들 걱정뿐인 어르신은, 아들에게 미안하기만 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땐 아프지 않았어.. 달리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대회 나가서 1등까지 했어. 그런데 지금은 산재사고 때문에 좋아하는 달리기를 못하고, 머느리 때문에 정신도 온전치 못한 게 제일 미안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는 어르신의 어깨가 축 쳐져있습니다.

“아들이랑 새로운 집에 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벅차요.” 넉넉지 않은 수입에 어르신은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폐지를 줍지만, 보증금을 구하기엔 한없이 부족합니다. 작은 방 한 칸이라도 아들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바랄 게 없다는 어르신은 한숨을 푹 쉽니다.

[“평범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평범함의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것, 중장년은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 노인이 되어서는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평범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르신은, 모두가 잠든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것, 퇴거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평범함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당연하게 누리며 살고 있지만, 현재 어르신의 생활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정신적 어려움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면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며 눈물을 지으십니다. 하지만 미우나 고우나 나의 아들이라며, 넉넉한 삶보다도 마음 편히 아들을 돌보며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만족하신다는 어르신. 당신의 작은 관심과 후원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

목표 금액 300 만원

후원방법

대상자: 곽순자 (가명)

모금계좌: 국민은행 313501-04-161305

입금자명: 000(곽순자)

모금기간: 2021.07.31 - 2021.08.31

”

※납입하시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 24조,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 노인복지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80-3

033-430-7800